

신기운 작가 개인전 <The Works is GRAY>에 부쳐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6 년 겨울 내내 한국의 국민들은 한가지의 간절한 염원으로 뚝뚝 뭉쳐서 부정한 권력에 대해 맞섰고, 현재 국가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이상적 사회(가 무엇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을 관철시키는 중요한 선거를 치렀고, 이후 온 국민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흥터로 남겨진 이 시기의 상처를 하나 하나 되새기며 봉합하고 어루만지는 한편 2017 년 7 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신기운 작가의 <The World Is GRAY> 전시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십 년도 더 된 해묵은 가루들을 고집어내서 영상이 아닌 조각적 회화 형식의 구현을 하였다. 이 가루는 신기운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한 그라인딩(Grinding) 시리즈 제작 중에 만들어진 가루들인데 갖가지 오브제들이 그라인딩 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해당 가루들은 그대로 모아두었던 모양이다. 이 가루들은 캔버스에 white, black, red, silver 등 원래의 장난감 자동차의 색을 나타내는 글씨를 드러나게 하며 겹겹이 쌓이며 표면을 만들어낸다. 전시 제목 <The World is GRAY>에서처럼 어떤 색의 장난감 자동차를 기계에 갈아내든지 짙은 회색 가루로 남게 되었다. 또한 '정의', '도덕', '존재', 'TRUST' 등의 문구가 있는 캔버스 형식의 작업은 작가가 힘겨운 2016 년을 보내며 구입했던 권력과 관련한 책들을 기계에 갈아서 얻어낸 가루로 만든 작업이다. 전시장에 마련된 모니터에서는 이 책들을 갈아내고 있는 영상이 연속으로 상영되고 있다.

전시장 바닥에 놓인 입체 작업은 3D 프린트로 뽑은 인물의 두상, 그릇 따위인데 특히 인물은 레닌, 나폴레옹, 소크라테스 등 특정 시기의 권력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할법한 인물들이고 신화에 등장하는 니케 같은 신의 영역에 있는 자 등이다. 이들은 역시 예의 책들을 갈아서 나온 가루로 뒤 덮인 채 마치 오랜 세월의 먼지를 입은 듯한 모습으로 전시장 바닥에 놓여 있었다. 권력을 가지고 한 세월을 풍미했던 인물들에게 씌워진 가루는 웬지 덧없고 쓸쓸한 말로를 떠올리게도 한다.

신기운 작가는 대학시절부터 작은 오브제를 기계로 갈아 가루를 냈는데, 이러한 종류의 작업의 출발은 조셉 코스수스(Joseph Kosuth)의 <One and Three Chairs>라는 작업을 본 이후에 떠올렸다고 말한다. 이 작가는 '의자'라는 단어를 두고 세 가지 종류의 의자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사물로서의 의자, 두 번째는 이 의자의 사진인 이미지로서 읽히는 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글로서 제시한 기호적 차원에서의 의자였고 이는 미국의 개념미술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 작업을 처음 접한 당시 학생이었던 신기운 작가는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물질, 즉 의자를 갈아서 그 형태를 없앤 후 남겨지는 나무 가루도 의자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에 생각이 미치면서 그는 물질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순수히 기록의 목적으로 촬영되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원래는 갈아낸 가루들로 뭔가를 만들 심산이었으나 제대로 시도할 새도 없이 보다 설득력이 있었던 특정 오브제가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오히려 작품으로서 제시하게 되었던 사연을 들려주었다.

시간의 레이어들을 쌓아서 만들어냈던 이미지의 연속적 변화를 재현한 영상 작업 그라인드 시리즈는 분당 몇 십 개의 프레임으로 찍은 이미지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이미지적 언어가 뚜렷하다. 가령 연속적 이미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않게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그러하다. 어쨌든 그는 애초에 시도하려다 마무리 하지 못했던 물질 자체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2017 년 개인전을 통하여 마무리 짓고 있었다. 3D 프린트의 속성상 이 작은 오브제들은 꽤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쌓아 올리는 특정 레이어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형상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갈아서 생성된 가루들이 또 한번 그 위로 여러 겹이 쌓이고 난 후 완성된 결과물이다. 소멸을 향한 반복적인 행위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소요 후 얻어진 새로운 형태이고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전의 그라인딩 시리즈 영상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으로 읽혀진다. 이 과정은 예술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동시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시간 속에서 반드시 쌓이고 있을 어떤 것이 후일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혹은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을 터이다.